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2025

베 이 밸 리 국제심포지엄

Bay Valley International Symposium 2025

With 제10회 환황해포럼



베이밸리, 환황해 혁신의 중심이 되다

2025. **9. 26** (금) 10:00 - 17:00

스플라스 리솜, 충남 예산

주최/주관 충청남도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제TV

환황해포럼 좌장 및 발표자 명단



토론 진행

박 흥 순 (좌장)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 명예교수

환황해권 지방외교와 협력의 중요성



양 갑 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석연구위원



지방외교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이 성 우

경기연구원 | 연구위원

장강삼각주 통합개발의 구상과 진행



Wang Yueqing

중국 장쑤성 사회과학원 | 부원장



장수성의 한중 경제무역 협력 : 이점 분석 및 미래 전망

Gong Baocheng

중국 장쑤성 사회과학원 | 연구원

시즈오카현의 지역외교 : 지역이기에 할 수 있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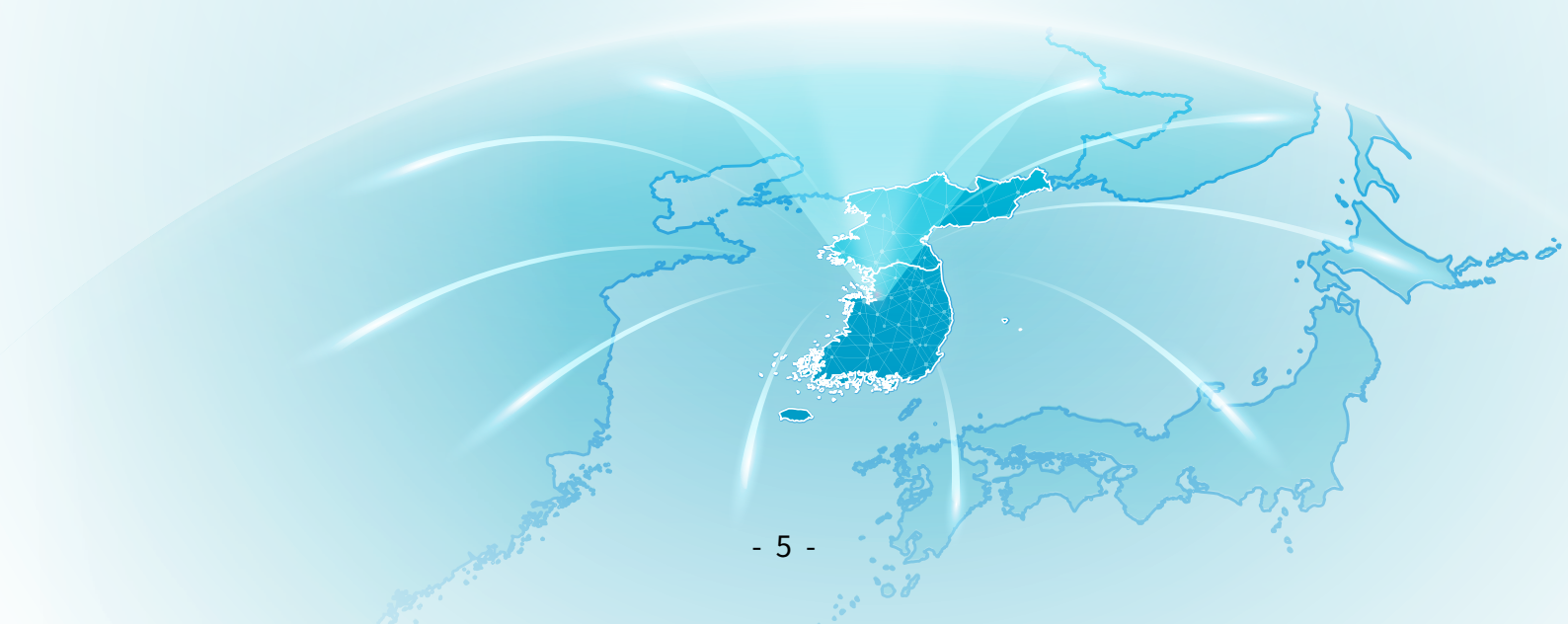


Matsumura Akihiro

일본 시즈오카현 | 기획부 참여관

목 차

01	환황해권 지방외교와 협력의 중요성	07
02	지방외교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21
03	장강삼각주 통합개발의 구상과 진행	35
04	장수성의 한중 경제무역 협력 : 이점 분석 및 미래 전망	45
05	시즈오카현의 지역외교 : 지역이기에 할 수 있는 일	59



환황해권 지방외교와 협력의 중요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양갑용



환황해권 지방외교와 협력의 중요성

2025.9.26

양갑용(INSS)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 환황해권과 지방외교의 개념과 정의

1) 환황해권

- 지리경제적으로 황해를 둘러싸고, 주로 **중국**(요동반도, 산동반도, 장강하구 유역), **한국**(경기, 충청, 호남), **일본**(규슈 지방)을 경제 교류의 대상으로 하는 지역 개념

- 지정학적 차원에서는 부상하는 중국, 한국, 일본에 **북한**을 포함하기도

- 자금, 기술, 인력 등 자원을 상호 보완과 무역, 투자, 기술교류 등 **경제적 상호 의존**을 통한 역내 **경제 발전**을 목표

- 주로 3국 중심의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등이 역내 비즈니스에 참가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 환황해권과 지방외교의 개념과 정의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 **지방자치단체(LAE, Local Autonomous Entity, 지자체) :**

- 관할 구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공공단체

-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공공단체', 편의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불림

(*주민, 복리, 자치사무, 공공단체)

(*자치 사무(△주민 생활 지원 △지역 경제 상황 파악 △지역 자원 재평가 △관광업 △주민 의견 청취 등) + 국가 위임사무)

(*관건은 지방재정자립도)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 환황해권과 지방외교의 개념과 정의

▪ **지방정부(LG, Local Government) :**

-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통치기구
- 특정 지리적 범위의 주민이나 대표자, 행정조직으로 구성
-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책임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조직

-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역의 지방 사무를 처리
- 지방자치 추구 단체로서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제외 의미에서 지방정부

(*도로 정비나 교육, 복지, 폐기물 처리 등 주민 자치 관련 공공서비스 제공)

- 지역의 특성, 주민 요구에 따라 국가와 다른 행정을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정부'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 환황해권과 지방외교의 개념과 정의

3) 지방외교

▪ **지방외교 개념**

- 지자체, 기업, NGO, 주민 등 **다양한 주체** 참여

- 이들이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교류나 협력 활동을 실시하는 것

- 경제, 기술, 의료, 복지, 환경,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

- 이 분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적, 사회적 유대 활동**

(*국가 간 외교 보완 + 국익 증진 + 국제사회 기여)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5

1. 환황해권과 지방외교의 개념과 정의

▪ **지방외교 태동 배경**

-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지방 내 존재 기업 및 주민의 **국제 활동 증가**

- 각 지자체에서 **외교 업무 담당 부서의** 역할 증대

(*한국: 지방 국제관계대사, 중국: 지방 외사판공실, 일본:지역 외교국 등 신설)

- Big Blur 시대 국익외교와 지방외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불투명해지는 **불확실성 시대** 도래

- 국익 개념의 변화와 국익 중시와 비견하여 지방, 기업, 개인 이익의 중요성 및 필요성 증대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민주주의 확산**. 지방에 권한 하방에 따른 **자율성의 증대**라는 제도적 변화)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6

1. 환황해권과 지방외교의 개념과 정의

▪ 지방 외교의 목적

- 첫번째 목적 : **국익(지방 이익)의 확보와 증진**

(*국익 증대 필요성에 따라 국가가 지방정부, 기업, 주민 등 다양한 행위자의 국제 활동 증가 유도)

(*국익 중심 국가 외교를 뛰어넘어 국익과 지역의 이익을 결합하는 지방외교 필요성 증대)

- 두번째 목적 : **비국가 행위자의 외교 활동**을 통해 지방, 기업, 주민이 직접 **국제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

(*예컨대 국가 외교의 빈 공간을 채워가면서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기여)

- 세번째 목적 : **국제 신뢰 구축**

(*지방, 기업, 주민 등이 각국, 각 지역과 신뢰 관계를 쌓아 지방 차원이 글로벌 협력을 심화)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7

1. 환황해권과 지방외교의 개념과 정의

▪ 지방외교 투사 분야

- **국제 교류와 협력** : 지자체(지방정부) 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연계 통한 통합 시너지 창출

- **경제 협력 활동** : 지자체의 비교 우위에 기초해서 연계 촉진 및 국제화 심화

- **정보 소통** : 해당 지역의 메시지와 정보 소통 통해 국제 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 **지방 거버넌스 혁신** : 지역의 역사와 문화, 아이디어와 기술 교류 통해 주민의 국제화 마인드 형성 기여

- **유엔 활동 지원** : 국제 사회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유엔 중심의 국제 체제 움직임에 기여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8

2. 최근 국제환경 변화와 지방외교

1) 최근 국제 환경

▪ 미중 전략경쟁? 패권경쟁?의 심화

- 미국의 **MAGA**(Make America Greate Again)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 중국의 **중국몽**(China Dream)과 '중국식 현대화'의 전략적 충돌

- 미중 경제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의 여진**이 계속

(*관세 유예 90일 만료 전에 미중 정상회담 통한 전격 타결 가능성 불배제)

(*미중은 상호 탐색전을 통해서 제네바, 런던, 스톡홀름, 마드리드 등에서 공식 경제무역대화를 이어오고 있음)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 최근 국제환경 변화와 지방외교

▪ 러우전쟁과 중동 그리고 새로운 긴장

- 트럼프의 취임 후 24시간 내 종전 공언(空言)
- 러우 전쟁은 여전히 포연이 사라지지 않는 **지구전 양상**

-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응과 연이은 공습으로 **안개 속**
- 북한 핵 문제는 트럼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면 밑에서 언제든지 **폭발 가능성 내재**

- **대만 문제**를 둘러싼 긴장감은 미중 갈등을 넘어 역내 분쟁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 불배제
- 난민, 테러, 인종 문제 등 세계 도처는 여전히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은 또 다른 신냉전 소환의 단초 제공 우려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 최근 국제환경 변화와 지방외교

2) 지방외교의 주체, 방법, 내용

▪ **지방외교 주체**

- 지자체(지방정부), 기업, NGO, 주민 등 **다양한 사회 성원**
- 지방외교의 책임 주체는 '지자체(지방정부)'이지만, 민간 단체나 협회, 일반 주민 등도 포함
- 지방외교의 내용 또한 경제, 의료, 복지, 환경, 문화, 교육, 스포츠 등 **광범위**하게 포진

(*지방외교 주체들은 지방외교는 아직도 국가 외교를 보완해야 한다고 인식)
(*지자체 : 해외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독자적인 외교 네트워크 구축, 구체적인 사업 전개)
(*기업 : 경제적인 제휴나 기술협력, 해외 지사 운영 등 통해 지방외교와 기업외교 추진)
(*NGO·주민 : 의료, 교육, 환경보호, 문화교류 등 분야에서 전문성 기반 신뢰의 개인 외교 전개)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1

2. 최근 국제환경 변화와 지방외교

▪ **지방외교 추진 방식**

- 지역의 우세 기반 기술협력 및 개발지원을 통해 문제 해결 및 지역개발에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기여
- 문화, 스포츠, 교육, 관광 등 교류사업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과 심화** 방식으로 지방외교 추진
- 유학생 파견, 국제회의 개최 등 인적 연결망이나 네트워킹을 통해서 **신뢰 기반 개인 지방외교** 전개
- 지자체의 매력과 지역자원을 알리고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방식의 정보 소통 및 교류
- 이밖에 지방 △**수장(首長) 외교나 정책외교**, △**공무원 교류 및 상호 파견** 제도 등 활용 상호 방문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2

2. 최근 국제환경 변화와 지방외교

▪ 지방외교 주요 내용

- 지역의 국제화를 통해 국제 사회의 역할 증대 및, **공통 직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및 풀이

- 경제 협력, 투자, 무역 촉진 등 **지방의 경제 활동을 국제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 발전에 기여

- 지방 특색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지속가능 모델 개발 및 **지방외교 표준 모델** 구현

(*예들 들어 지방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문화, 교육, 환경, 복지, 의료, 간병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의 해법을 지방외교를 통해서 해결)

(*이러한 지방 간 반복된 교류·협력을 통해서 역내 지방정부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매뉴얼 작성 및 표준화 등)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3

3. 지방외교가 왜 중요한가?

1) 지방외교의 중요성

▪ 지방외교가 필요한 새로운 공간 출현 및 확장

- 국익 중심의 국가외교를 **일선에서 풀어나가는 주체가 바로 지방,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주체**
- 주로 정치 군사적 의미의 기존 외교에 비해서 작금의 외교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

(*국가 중심 국익외교의 공간이 점차 다양한 주체들의 이익 탐색 및 공유 공간으로 이동)

-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외교 독점을 이완시키고**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국경을 초월하는 교류와 협력 공간을 제공
-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등 주민의 삶에 직결된 분야의 정보교환이나 국제교류 필요성이 주민 자치사무에 천착하는 **지방정부의 외교 DNA를 자극**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4

3. 지방외교가 왜 중요한가?

▪ **톱다운(top down) 방식 외교의 효율성 저하 극복**

- 외교는 중앙정부와 국가가 **독점하던 시대적 소명은 한계에 직면하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소환하고 있음

- 지자체(지방정부)는 자치사무와 국가 위임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으로 **자치사무 추진 과정에서 국제 활동이 자연스럽게 증가**

- 국익 실현을 위한 국가 중심 외교에서 지방외교의 활동을 통해서도 국익을 실현한다는 **바텀업 (bottom up) 방식의 새로운 외교 환경 도래**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5

3. 지방외교가 왜 중요한가?

▪ **다양한 문제 해결 주체 등장에 따른 현상**

- 국제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단일한 주제, 단일한 역할, 단일한 주체로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복수의 다양한 주체들이 문제 해결 및 관리에 참가**하고 있음

- 지역 간 연계를 통해서 국제협력과 개발지원, 환경문제, 문화교류 등 **공통의 과제에 접근하고** 있고, 그 해결책 또한 **집단지성에 기초**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즉, 국가 간 외교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여러 분야나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는 지역에 몸담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주체적 참여가 필수**

- 다양한 문제 해결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는 **시대 정신이** 되고 있음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6

3. 지방외교가 왜 중요한가?

▪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외교를 보완하는 시대적 흐름 반영**

- 민주주의의 기본은 주권자의 **주인 의식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고, 국익 중심의 국가외교 또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

- 이런 의미에서 국가외교를 실행하는 주체로서 지방, 기업, 주민 등은 국제교류의 핵심 행위자들이고, 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소양을 갖춘 자**

- 국가의 거버넌스가 정책의 이해에 기반하여 국민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로 성숙되어 가는 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 그 자체**는 이미 지방외교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있음

- 국민 개개인이 외교 주체로서 국제 교류 및 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지방외교의 하나의 흐름이고, 이들의 참여 보장이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7

3. 지방외교가 왜 중요한가?

▪ **지방의 독특함(locality)이 지방외교를 고양하는 동력으로 작용**

- 활발한 대외 활동의 증가는 해당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상품, 이미지, 생각 등을 전파하는 이른바 매력 공세라는 점에서 이른바 **지역성(locality)**에서 한층 더 고양될 수 있음

- 역내 여러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문화, 기술, 매력 등을 해외로 발신**하는 것이 지방외교에서 중요한 목적이지 수단이 되고 있음

(*지방의 성과나 문화를 뽐내고자 하는 자기 지방에 대한 애정 그 자체가 바로 지방외교의 확산 동력이 된다는 의미)

(*가령 '위대한 지방 시대', '지방의 국제화', '세계 속의 우리 고장' 등 표현은 모두 '지방성'에 기초한 지방외교 확산과 발전의 동력)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8

3. 지방외교가 왜 중요한가?

2) 지방외교의 새로운 변화 및 대응 전략

▪ 지방외교 추동 동력의 새로운 변화

- **지방외교의 목적 변화** : 기존 국가 외교 보완 및 국익 증진에서 국가 외교 선도 및 **주민 이익 극대화**로 변화
- **자치사무의 국제화** : 지방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이미 일국의 문제가 아닌 **보편의 문제**로 증폭
- **문제의 복합성** : 국가 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빅블러**(big blur) 시대의 흐름
- **지방자치의 발전** : 중앙정부의 의존에서 탈피하려는 지자체의 **자기 주도 발전** 유인
- **세계화 흐름**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지구적 세계화 흐름은** 지방정부가 국제 사무에 직간접 참여 기회 제공
- **지방의 역할 증대** : 환경, 기후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 **지방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 증가**
- **다양한 행위자 네트워킹** : 각 지역에 산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제휴, 연대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공존의 기회 증대**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3. 지방외교가 왜 중요한가?

▪ 지방외교 대응 전략

- **리더의 역할 강화** : 국제 사회 다양화에 다른 여러 행위자의 등장은 새로운 거버넌스와 함께 **리더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 (*기존의 관리 통제형 리더십이 아니라 창의 혁신형 리더십)
- **지방외교의 아젠다를 국가외교 의제로** : 지방외교의 성과를 심화하여 **국가의제로 격상**하는 노력
- **지방외교의 범주 지속 확대** : 공통 직면 문제에 대한 **해결 플랫폼을 일국에서 다국으로 변화**하여 집단지성 해결 방안 활용
- **지방외교 참여 인력 확충** : 주민이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는 **지방외교 의제를 보편화**하여 국가별, 지역별, 부문별, 성별 등 분절화된 접근 경로를 대폭 개선
- **역내 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역내 행위자(지방, 기업, 주민 등)들이 직면할 수 있는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열린 결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는 노력 긴요
- **지역의 특색 발굴 및 지역성(locality) 강화** : 지역 **특색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국제교류의 우위를 점하고, 국제협력의 추진 동력으로 활용
  (*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 행위 주체 간 제휴 강화, 지역 특색 이벤트 발굴 및 사업 기획 등)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Q&A

/끝/

지방외교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성우



GRI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지방외교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GYEONGGI RESEARCH INSTITUTE

발표자 이성우

2025년 9월 26일



GRI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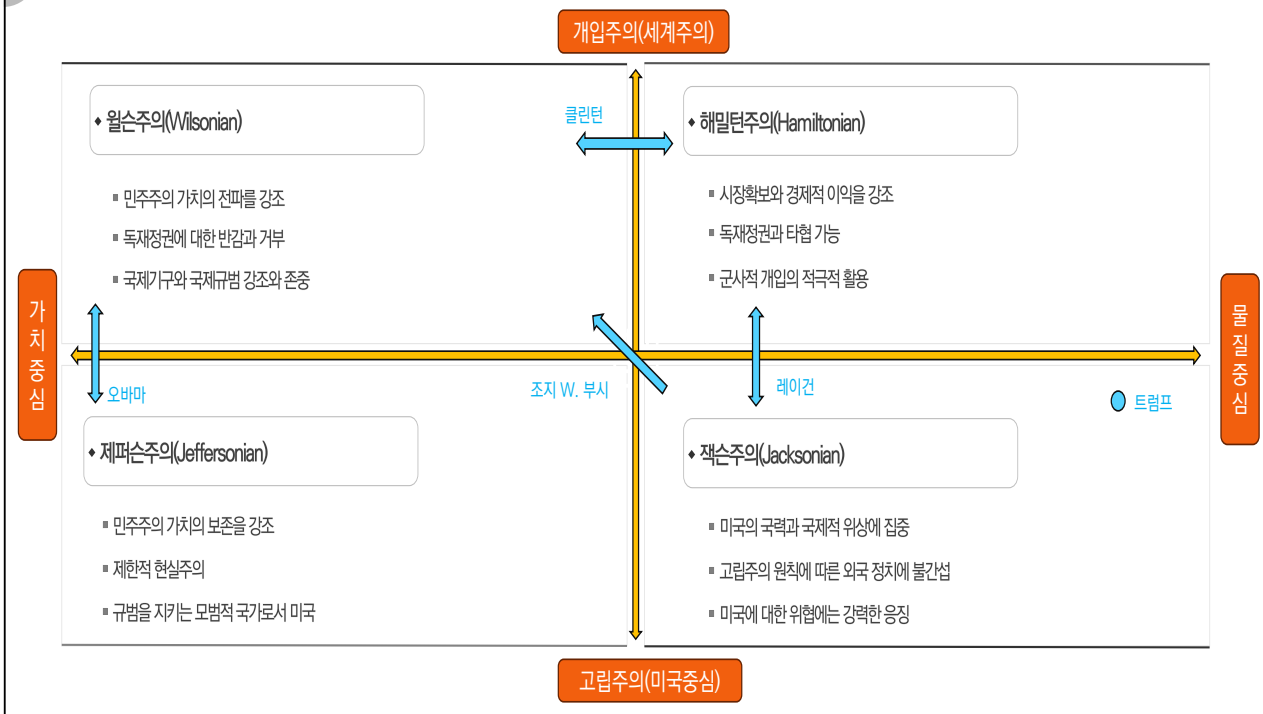
1 국제질서의 변화와 지방외교의 등장

국제질서의 변화와 미중전략경쟁



- 규칙기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종식
  -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전후 국제질서
  - 국제정치: 규범과 가치에 기초한 국제평화(1국 1표의 국제의회주의)
  - 국제경제: 달러 본위의 자유무역
- 이론적 기반
  - Balance of power의 실패로 세계대전을 경험 그리고 냉전
    - balance of terror 공포에 근거한 상호 억제(mutual deterrence)
  - Power preponderance 미국주도의 평화 pax Americana
    - hegemonic stability 패권국이 제공하는 질서와 규칙에 편승/ 질서의 우위
- 자유주의 이론의 종식
  - Democratic peace / Market economy peace

미국외교정책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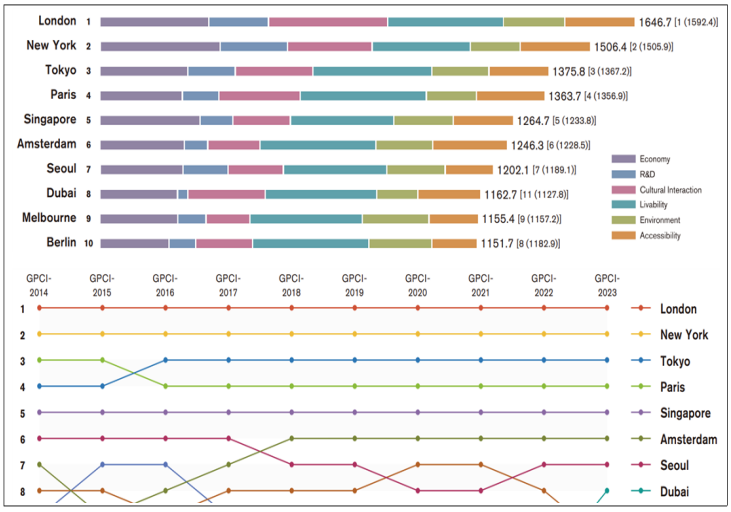
전례없는 미국의 대외정책 전환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

Trump 2.0시대 국제질서의 변화 지방정부의 목표

- 트럼프 2기 정치적 현상
  - MAGA를 위한 American First(우선주의) 및 exceptionalism(예외주의)
    - 기후변화 대응 후퇴와 화석연료를 통한 경제활성화 추진
    -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유가와 금리 인하를 통한 물가대응
    -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보 및 불법이민 추방과 국경강화
  - 동맹에 대한 개념과 역할 조정: 관세인상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 직접투자 유도
    - 주한미군철수 카드로 방위비 인상 요구
    - 경제안보에 기반한 군사, 조선,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필수 공급망의 미국중심 재편
- 국제질서의 변화: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영향
  -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BRICS의 강화와 확대
  -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냉전 대결구도의 재현
- 지방정부의 대외협력의 목표
  - 국제질서의 변화에 적응 및 지역의 발전 추구

지방외교의 필요성: 외교의 국가독점성 약화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이 대안으로 등장

〈지방외교에서 세계 주요 도시의 경쟁력 지수 현황(2023)과 변동(2014~2023)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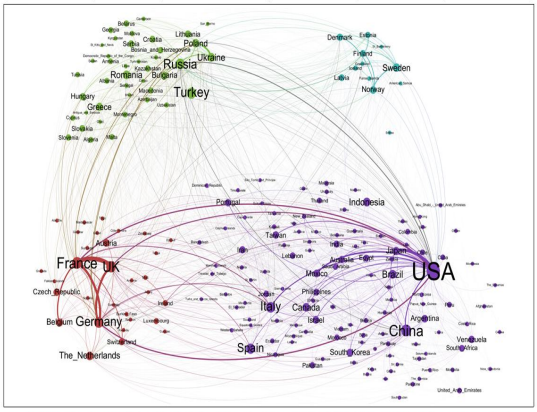
자료: Institute for Urban Strategies - the Mori Memorial Foundation(2023). *Global Power City Index.*

- 국제화·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 국제(inter-state)와 민제(inter-people) 외교 등장으로 지방의 역할 강화
- 서구사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라 접경도시 사이 협의가 필요한 물 관리, 교통, 긴급피난 등 과제가 등장하면서 지방자치 일환으로 도시외교 시작
- 지방공무원이 지역 행정의 국내 사무만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국제적 정책 주체로 나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시점

선진국의 국가하위조직의 국제교류에 기초한 지방외교 강화

〈자매결연 기준 도시연계를 기준으로 상위도시 국가〉

도시명	연계강도	양자관계 중심성	국가명	가중치	양자 관계성
상트페테르부르크	78	1,562,697.9 (1)	미국	452	9855 (1)
상하이	75	825,512.7 (4)	프랑스	3313	1946 (3)
이스탄불	69	601,099.5 (12)	독일	2778	886 (6)
키예프	63	758,725.1 (5)	영국	2318	2268 (2)
카라카스	59	430,330.5 (23)	러시아	1487	483 (9)
부에노스아이레스	58	348,594.3 (36)	폴란드	1144	34 (33)
베이징	57	184,090.4 (124)	일본	1131	168 (20)
상파울루	56	427,457.9 (24)	이탈리아	1126	849 (7)
쑤저우	54	740,377.2 (6)	중국	1076	1538 (4)
타이베이	53	486,042.2 (20)	우크라이나	946	8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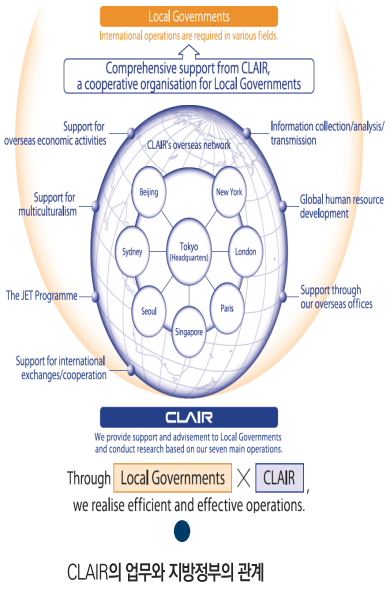


주: 2013년 기준 15,225쌍의 도시 간 자매 결연을 기반으로 도시의 연계중심성과 국가별 연계를 도식으로 표현.
자료: Kaltenbrunner et al.(2013). *Not all Paths leads to Rome.* Conference Paper.

- 전반적으로 G8 국가들이 도시 간 네트워크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주요 도시의 다수가 경제교류와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공유
- 지방외교 연계성은 지리·문화적으로 인접한 국가·도시의 군집현상을 보이며 대한민국은 미국·중국이 포함된 아태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유지

해외(미국·일본) 지방외교의 제도화 및 운영 사례

지방의 독자적 운영보다 중앙정부 외교부서와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CLAIR의 업무와 지방정부의 관계

- 일본의 CLAIR는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중앙-지방의 네트워크 협력 네트워크로 운영
- CLAIR는 지방 공공외교 차원에서 경제교류, 국제협력, 다문화 JET 프로그램을 운영
- 미국은 국가 하위의 개념으로 주정부와 시정부의 대외협력을 국무성이 지원하는 형식
- 주정부의 해외투자유치 정치, 경제, 공공외교를 결합하는 형태로 국무성이 지방정부를 지원
- 해외 사례는 독자적인 사무소보다 대외협력의 시너지 확대에 주력

2 대한민국 지방외교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지방외교의 제도적 현실

- **지자체 국제교류 관련 법령은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명확성 부족**
  - 개정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은 지자체 사무 범위(동법 제13조)에 “국제교류 및 협력” 업무를 신설하고 관련 근거 규정(동법 제10장)을 마련
  - 「공공외교법」(2016. 2. 3. 제정)의 시행으로 외교부는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의 협업·조율 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외교의 수행 주체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
  - 「국제개발협력법」은 개도국의 빈곤감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직간접 및 유무상의 ODA사업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과 충돌 우려 및 빈약한 예산 등 한계
  - 「국제문화교류진흥법」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과 시행 및 재정 행정 책무가 있으며 조례로 규정
- **선진민주주의 국가는 도시외교 등의 새로운 개념으로 지방외교 접근**
  - 현행 법은 국제기구·행사·대회 유치 및 외국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제한적 허용하므로 외교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외교법」의 제정을 요구
  - 「지방외교법」은 초안 단계로 ‘지방외교관직 신설, 지방정부의 해외공관 확대 설치, 그리고 광역 비자 발급 등 외국인 근로자 정책 합리화’의 추진 등 포함

▪지방외교 관련법규



한국의 지방외교에 대한 인식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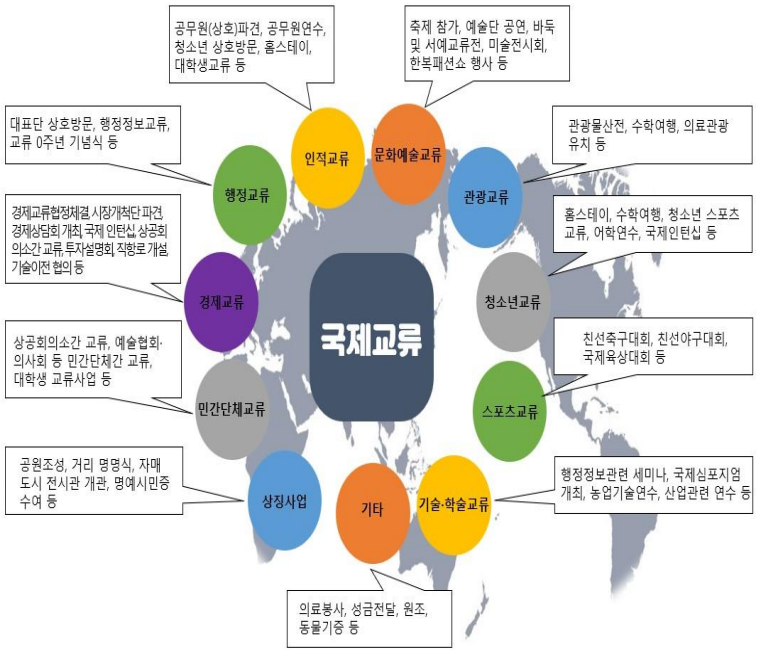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국제교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만연
- 국제경제 및 투자·통상업무에 집중되어 있고 공공외교와 기여외교는 사실상 제외

〈지자체가 수행해 온 국제교류의 목적과 형태〉

구분	목적
국제협력의 인식 제고	•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주민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국제교류 협력 공감대 형성 • 국제 흐름과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 개혁 • 해외연수·견학·시찰 등을 통한 견문 확장 및 개방적 세계관 도모 등
행정 선진화와 역량 제고 및 후진국 발전에 기여	• 발전된 선진행정과 선진제도(법과 제도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후진국 발전에 기여 •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쌍방향 상호협력 체제 구축 • 지방과 도시의 국제화 기반 조성 및 내부 수용 능력과 국제적 역량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재 개발	• 지방경제와 지역산업을 자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외국인, 외국기업, 외국기관, 국제기구의 국내 활동 지원 • 우수기술, 해외자본, 우수인재 유치, 이주노동력 확보 등
국제사회와 공동협력	• 국제적 공동 관심사(환경, 보건, 재난 및 위기관리 등) 협의 및 상호지원 협력 • 자치 관련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적 연대 활동 증대 • 국가 외교의 보완 및 지방 차원 지역 외교 증진 등
문화이해 및 사회발전	• 외국문화 이해와 자국 문화 자긍심 고취 • 지방인재와 지방 교육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 국제정보를 통한 지역 정치행정과 사회문화 발전 도모 등

자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2015).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매뉴얼』.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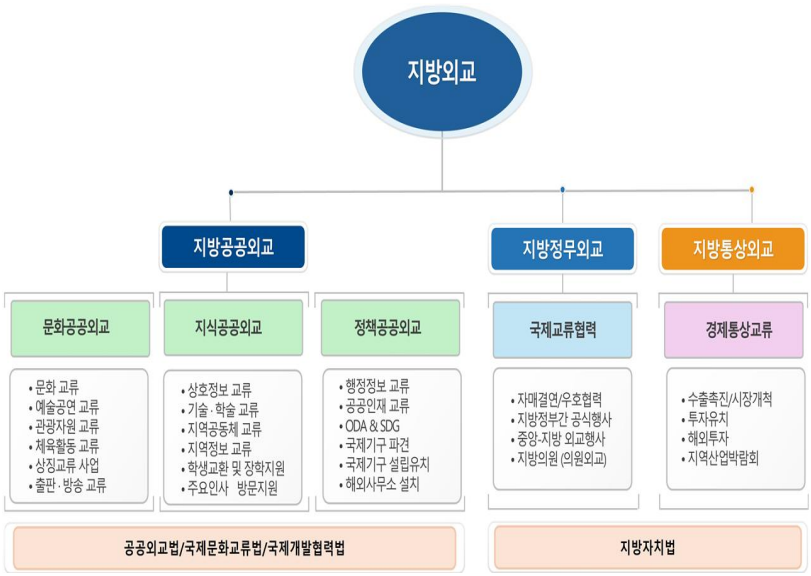
대한민국 지방외교 실행 주요 분야 및 예시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search/search.do (2023. 4. 22. 검색.).

대한민국 지방외교 사무의 범위와 체계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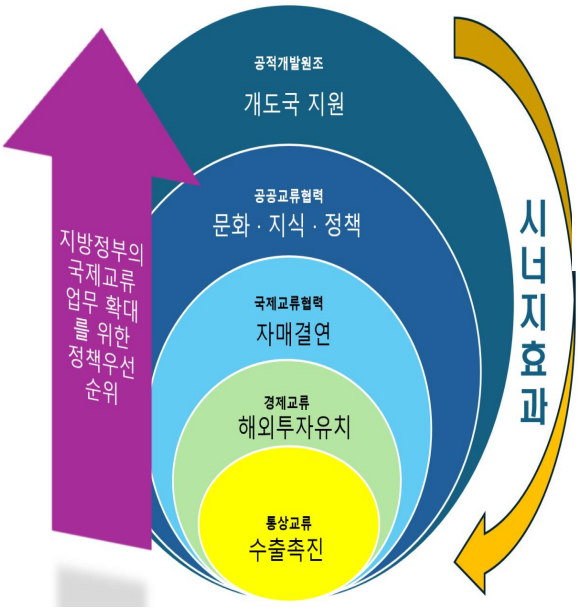
- **지자체의 국가외교 보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외교 법 입법 필요**
  - 현행 법은 국제기구, 행사, 대회 유치 및 외국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제한적 허용하므로 외교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외교법」의 제정을 요구
  - 「지방외교법」은 초안 단계로 '지방외교관직 신설, 지방정부의 해외공관 확대 설치, 그리고 광역 비자 발급 등 외국인 근로자 정책 합리화'의 추진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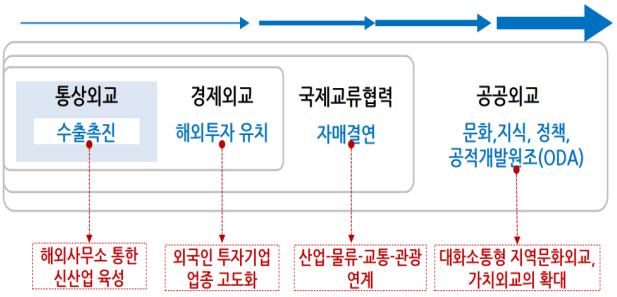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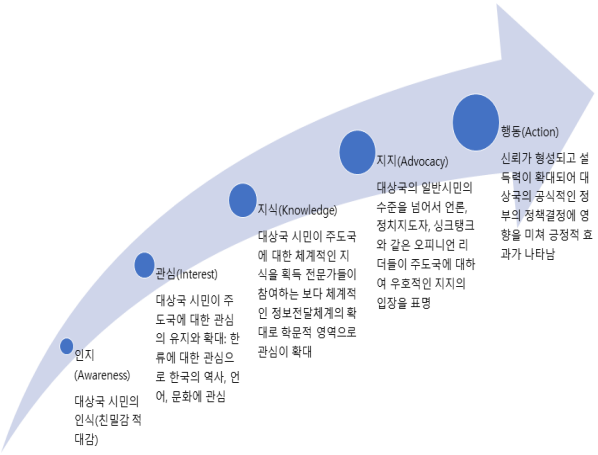
규제에 대한 문화의 차이가 만든 결과



대한민국 지방외교의 전략







- 지방외교는 외교활동 행위자와 행위영역을 확대하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외 교류협력 활동으로 파악

GRI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

3 동아시아 지방외교 플랫폼 제안

지방외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위

자율성, 이익 반영의 제도화, 제도적 수용의 정도에 따라 규정

★ 합리적 국가도구로서 지방(region as an instrument of a rational actor)

-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정자 및 행위자인 중앙정부의 정책도구
- 중앙정부에 유용한 정보제공은 가능하지만 정책결정은 주도할 수 없음
- 중앙정부가 정책 수행의 필요와 편의에 따라 지방을 도구로 활용

★ 이익집단으로서 지방(region as an interest group)

- 지방은 정책결정자 또는 집행자로서 정치적 주체가 아님
- 지역 출신 의원이나 정치인을 대리인으로 지방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
- 이익집단·시민단체와 같이 정책결정자인 중앙에 접근하여 각자의 이익을 위해 로비

★ 관료적 제도로서 지방

- 지방을 중앙의 외교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 내 행위자로 인정
- 역할은 중앙을 통해서 수행하며 지방의 대표를 중앙에 파견하여 이익의 반영을 시도
- 전문성과 체계적 절차 강조, 지방의 독자적 역량강화에 적합 /시민사회요구에 수동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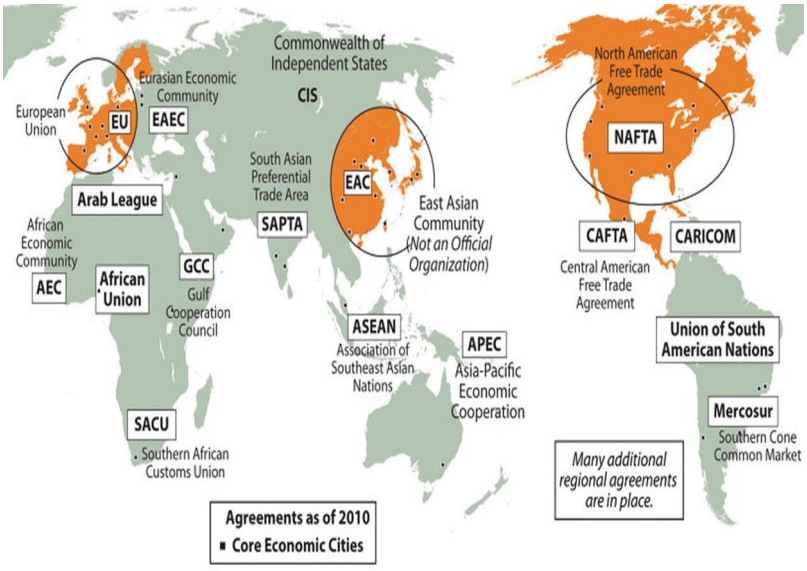
★ 독자적 외교정책 행위자로서 지방(region as an individual foreign policy player)

- 지방이 중앙의 외교정책 결정과 집행에 직접 참여
- 외부행위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여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
- 자치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이상적이나 연방제 차원의 독자성 필요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은 국가차원의 다자외교는 물론 지방외교가 발전하기 어려운 여건

세계경제 블럭화와 동아시아공동체(EAC)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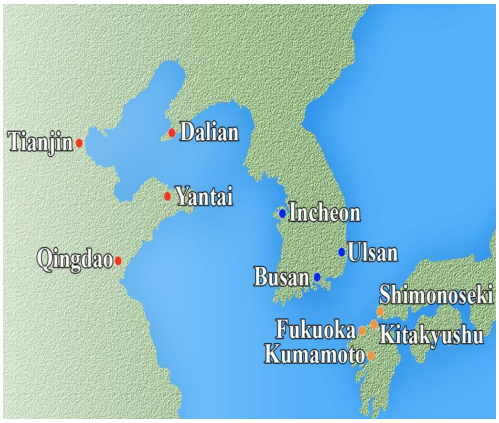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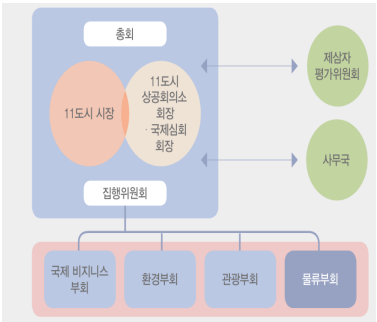
- 다자공동체의 필요성에도 한중일은 결손국가(handicaped state)로 국가성 전환 과정
  - 분단국가, 분단과 체제전환국가, 평화기지국가의 현실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장기적 과제
  - 중국의 부상에도 군사적 경쟁보다는 평화적 번영을 추진하는 다자공동체 모델이 바람직한 방향
  - ASEAN, APEC, ASEM, 동아시아 정상회의, ARF+3, EAS등의 지역협력체가 존재하지만 도시공동체 구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접근의 시도가 필요

동아시아 지방외교의 현황

- 지방정부간 다자외교의 필요성에 대한 노력 확대
  -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와 동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 경기도-가나가와현-랴오닝성 3지역 협의회
  - 인천이 주도하여 진징지(京津冀: 北京·天·河北)-서울·인천·경기 협의회 추진
  - 서울시 주도의 한·중·일 3국 수도의 '베·세·토' 협의체 복원을 통한 3자 외교협의체 추진
  - 대전이 주도한 세계과학도시연합(WTA)과 같은 플랫폼이 있지만 활동은 미약한 실정
-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자외교 시도
  - 수원시의 2025 20회 ITS(Intelligent Transition Systems, 지능형교통체계) 아태총회'
  - 경기도와 유엔환경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UNEP-ROAP)가 공동 주최로 개최한 '2021 청정대기 국제포럼' (수원시)
  - 경기 고양시는 2024년 '제5회 세계도시 포럼(World Cities Forum 2024)' KINTEX
    - 세계 지방정부 협의회(ICLEI) 사무총장,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등이 조직되어 국내 지차제의 지방외교를 추진

한·중·일 연안 도시를 주체로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





- **동아시아 도시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설립**
  - 1991년 동아시아 도시회의 및 동아시아 경제인회의에서 6개도시 출범 "부산, 인천, 칭다오, 다롄, 기타큐슈, 시모노세키"
  - 회원도시: 울산, 텐진, 옌타이, 후쿠오카(2004)+구마모토(2014)
  - 총회, 집행위원회, 부회, 제삼자평가위원회, 사무국 등의 조직을 갖춤
    - 부회: 국제비즈니스, 환경, 관광, 물류의 4개 전문분야로 구성
    - 제삼자평가위원회: 회원국 1명씩 3명의 전문가로 구성
    - 사무국은 기타큐슈시에 설치
- 환황해지역 광역경제권 형성 및 동아시아 경제권 발전을 5가지 중점과제
  - 동아시아 FTA 창설, 환황해 환경모델 지역 창출, 뉴 비즈니스 창출 시스템 구축, 환황해 관광브래드 전략, 기술교류 인재육성 플랫폼 형성

동아시아 지방외교의 한계

- 국제 및 지역 차원의 구조적 요인
  - 미중전략경쟁 등 강대국 중심의 외교 구조로 제로섬 게임에 입각한 외교관계 인식
  - 역사 및 영토 문제 등 국가차원의 갈등과 지역 불안정 요인의 상존
- 국내 정치적 요인
  - 중앙·지방의 괴리(외교 정책 목표와 불일치) / 지방정부 간 과도한 경쟁
  - 해당 참여 지방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의 정책목표의 부재(SDGs)
    - 한국은 문화협력, 일본은 해양협력, 중국은 빈곤퇴치(학과 여우의 식사초대)
- 지방외교 주체인 지방정부의 내재적 제약
  - 개별 지자체의 정치 및 경제적 역량과 자원의 한계
  - 자율적 국제교류와 다자협력의 짧은 역사와 경험의 부족
  - 민간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단체나 지자체의 역량 제약
  - 지방외교 활동은 자매결연, 통상·투자, 교류협력의 양자관계 중심 파트너는 아시아에 집중
- 새로운 의제의 등장에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증대
  -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초국경성 위기에 대응
  - 신기술의 등장, 벨류체인 재편, 경기 침체와 같은 위기에 지역경제

동아시아 지방외교의 제도화 전략

- 공동이익을 위한 공동의 관심사를 파악
  - 지역경제협력 증진, 문화교류 등 군사안보와 같이 민감하지 않은 주제
  - 국내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지방정부에 합당한 주제
    - 인권, 평화, 정의, 민주주의 등 추상적이고 민감한 주제는 지양
    - 마약, 사이버, 원자력 안전 등의 비전통 안보의제는 중앙정부가 처리
    - 지방정부는 경제협력, 관광협력, 환경협력과 같은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현안위주 접근
- 기존의 지방정부의 다자국제기구와 협력 속에 양자협력보다는 다자협력체를 시도
  - 한국 서해안, 중국의 동부연안, 일본의 규슈지방을 주요 참여대상으로 설정
  - 가칭 『한·중·일 연안지방외교협의체』의 구성을 제안
    - 각국 지방의 경제활성화, 청년실업해소, 인구소멸 극복 등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제안
  - 협력의 제도화 및 습관화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정착과 사회발전에 기여를 목표
- 새로운 지방외교 페러다임을 제시하여 실험을 통해 지방외교를 확대
  - 기업, 시민단체, 대학, 연구소 등 새로운 행위자의 참여
  - SDGs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 의제 개발 및 집중
    - 양질의 교육, 해양 및 육상생태계 보존,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동아시아 연안 지방외교 협의체의 새로운 시도

- 동아시아 지방외교의 목표에 합의
  - 각 지방의 저발전과 인구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의제
  - 지방외교를 수행하는 다자기구의 설립을 통해 동아시아 자유무역기구로 발전
  -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의 안착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
-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호혜적 이익이 보장되는 의제 개발
  -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관련한 해외직접투자, 스타트업, 청년취업
  - 항공노선 및 선박노선 확대와 의료관광 크루즈 관광등 관광산업 활성화 및 연계
  - 공연·전시 문화교류 및 스포츠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
- 대표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와 다자협력을 추진
  - 한국: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인천
  - 중국: 산둥성, 장수성, 푸젠성, 저장성, 랴오닝성, 허베이성, 상하이
  - 일본: 히로시마현, 시마네현, 후쿠오카현, 나가사키현, 가고시마현,
- 다양한 행위자의 참가
  - 상공회의소,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시민과 민간의 참여
  - 시·도 의회와 의원이 참여하는 공공외교

GRI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

"감사합니다"

THANK YOU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장강삼각주 통합개발의 구상과 진행

중국 장쑤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Wang Yueqing



장쑤 사회과학원

장강삼각주 통합개발의 구상과 진행

왕웨칭, 장쑤 사회과학원 부원장 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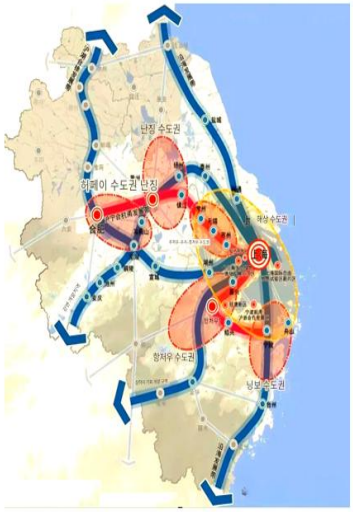
2025년 9월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장강삼각주 통합개발의 구상과 진행

- 장강 삼각주 지역은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성 전역을 포함하며, 면적은 35만 8천 평방킬로미터 입니다. 2024년 상주 인구는 2억 3,800만 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16.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제1회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에서 장강 삼각주 지역의 종합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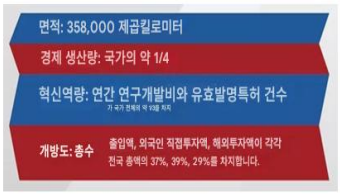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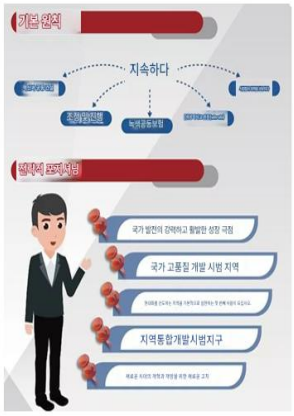
장강삼각주 통합개발의 구상과 진행

(허가를 받아 공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은 "양쯔강 삼각주 지역 통합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시기획개요

2019년 12월 1일 오후 7:10:06 출처: Xinhuanet







I. 장강삼각주 종합개발 개념

(1) 중국식 현대화 선도

- 장강삼각주 종합개발에서 새로운 중대한 돌파구를 추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선도하며, 개척, 선도, 시범, 전파의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한다.



2023년 11월 상하이에서 장강삼각주 통합개발 심화에 관한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1. 장강삼각주 지역 통합개발 개념

(2) 세계적 수준의 도시 클러스터를 높은 수준으로 구축

- 상하이의 중심도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주변 도시와의 분업과 협력을 강화하며, 내부적으로는 긴밀히 통합하고 외부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연계하여 상하이 대도시권을 건설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 클러스터를 공동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I. 장강삼각주 종합개발 개념

(3) 강하고 활발한 성장극이 되기

- 혁신 원천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현대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자원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수준과 전반적인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자원 배분 및 경쟁 참여 능력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영향력과 추진력을 강화합니다.



I. 장강삼각주 종합개발 개념

(4) 지역통합개발 시범지구화

- 종합적 개발 시장 체계를 형성하고, 인프라 상호 연결, 과학기술 혁신 산업의 심층 융합, 생태 환경의 공동 보호 및 관리, 보편적이고 공유적인 공공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실현합니다.

출시 시간	중점 분야	일련번호	제도혁신 성과
2024년 1분기	생태환경의 공동보호 및 관리	1	시범구역 생태환경 접근 목록
		2	시범지역 생태환경 평가지표 시스템
		3	시범구역 내 국경 간 공용수원에 대한 공동 의사결정, 공동 보호 및 통합 관리·통제 메커니즘
		4	시범 지역 (Dianshan Lake, Yuandang Lake, Taihu River (Pantu Lake 포함)) 주요 국경 수역 공동 보호 및 생태 구축을 위한 실행 계획
2024년 2분기	요인 흐름	5	지방 간 서비스를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 메커니즘
		6	공개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
		7	전문기술인력의 전문자격 상호인정제도
2024년 3분기	기획관리	8. 성을 넘나드는 토지 및 우주 계획을 위한 공동 편찬 및 검토 메커니즘	
		9	성급 간 국토공간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물리적 검사 및 평가 메커니즘
		10	지역 최고 계획자 제도의 법도성 공동 구축
2024년 4분기	공공 서비스	11. 중등 직업학교를 위한 지방 간 등록 및 관련 메커니즘	
		12	통합된 도(道) 의료보험 서비스 메커니즘
		13	노동 분쟁 중재 및 조정을 위한 지역 간 조정 메커니즘
		14	인접 지방지역 대중교통 운영체계

I. 장강삼각주 종합개발 개념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장강 삼각주 통합을 위한 청사진

- 경제 회복의 긍정적 추세를 공고히 하고 고품질 발전의 추진력을 강화합니다.
-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 분야에서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새로운 고품질 생산성을 개발한다.
- 전략적 허브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 생태환경의 공동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아름다운 중국 시범구 건설을 가속화합니다.
- 기본 공공 서비스의 편리한 공유를 촉진하고 국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 종합개발의 체계와 기제를 완비하고,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도록 촉진한다.



2025년 6월 6일부터 7일까지 2025년 장강삼각주 지역 주요 지도자 심포지엄이 장쑤성 난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II. 장강삼각주 종합개발의 진행

(1)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2024년 장강삼각주 지역의 GDP는 33조 위안(RMB, 이하 동일)을 돌파하여 전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1분기에는 그 비중이 2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 '조 달러 도시'는 9개로 늘어나 중국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 경제 규모는 세계 6대 도시권 가운데 2위로 도약했습니다.

II. 장강삼각주 종합개발의 진행

(2) 혁신역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2024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의 '글로벌 100대 혁신 클러스터' 순위에서 상하이-쑤저우, 난징, 항저우는 각각 5위, 9위, 14위를 차지했습니다.

3개 성(省)과 1개 직할시의 첨단기술기업이 전국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생물의학, 집적회로, 신소재, 첨단장비 등 분야의 26개 클러스터가 국가급 첨단제조 클러스터로 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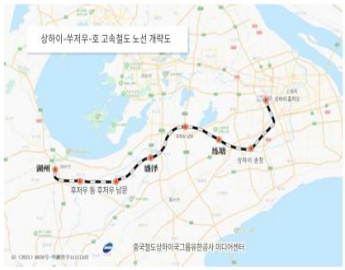
양쯔강 삼각주 지역은 전국의 대형 항공기 설치 및 지원 공급업체의 3분의 1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산업 체인에는 900개가 넘는 관련 기업이 있어 R&D 및 설계부터 부품 제조, 최종 조립 및 납품까지 완벽한 산업 체인을 형성합니다.

II. 장강삼각주 종합개발의 진행

(3) 지역시장의 원활한 유통

- 장강삼각주 철도 운행거리는 15,000km를 넘어섰고, 일일 평균 승객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이동성'을 갖춘 도시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 최근 5년간 16개의 성 간 막다른 도로가 개통되었고, 100여 개의 성 간 인접 버스 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 다른 지역의 외래환자 정착은 41개 도시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누적 정착자는 3,800만 명이 넘습니다.





II. 장강삼각주 종합개발의 진행

(4) 생태환경의 지속적 최적화

-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장강삼각주 생태녹색종합개발시범구의 3급 표층수 구간 비중은 75%에서 96.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연평균 PM2.5 농도는 30마이크로그램/m^3, O3 농도는 154마이크로그램/m^3로 2019년 대비 각각 21%, 8.9% 감소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총 2,790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 2024년까지 안후이성은 '제로쓰레기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장강삼각주 41개 도시를 모두 '제로쓰레기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 2025년 5월 22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성의 생태환경부는 인접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공동으로 강화하는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21개 성급 도시(구)가 공동으로 생태계 안정성을 개선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감사해요!

장수성의 한중 경제무역 협력: 이점 분석 및 미래 전망

중국 장쑤성사회과학원 연구원 Gong Baocheng



장쑤 사회과학원
장쑤성 사회과학원

장쑤성의 중한 경제무역협력 참여: 이점 분석 및 미래 전망

공바오청(Gong Baocheng), 장쑤성 사회과학원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목차

목차



01 중한 경제무역협력 개요

02 중한 경제무역협력 참여로 인한 장쑤성의 새로운 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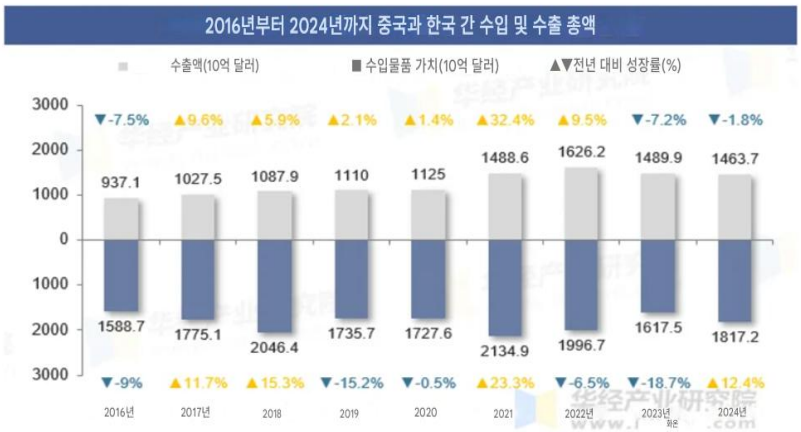
03 향후 협력 및 전망

I. 중한 경제무역협력 개요

중국과 한국은 바다와 강으로 분리되어 있어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입니다. 또한,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상호 이익과 상생의 결과를 가져오는 수준 높은 협력 파트너입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무역, 투자,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도 심화해 왔습니다.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이를 통해 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양국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체결하고 이행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협정 발효 후 10년 동안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성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중국과 한국의 양자 무역 규모는 3,280억 8,000만 달러로 5.6% 증가하여 한국의 전체 대외 무역의 21%를 차지하며, 같은 기간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규모의 1.4배, 같은 기간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규모의 3.5배에 달합니다. 이 중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329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미국보다 높고 한국의 대일본 수출의 4.5배입니다.

중국은 21년 연속으로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고, 한국은 다시 중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강화되는 현재의 국제 정세 속에서도 중국과 한국 간의 경제·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한국 무역: 구조

이전

주로 강철판, 섬유 등 단순 경공업 및 중화학 제품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중간소재 중심으로 전환

중국은 한국에서 수입한다.

1992년에는 철강제품, 합성수지, 철근, 가죽, 인조섬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제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이

2024년에는 반도체,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 석유제품, 광학기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에 수출한다.

1992년에는 식물성 물질, 원유, 직물, 시멘트, 석탄;

2012년에는 반도체, 컴퓨터, 철강제품, 무선통신장비, 평판디스플레이 등이 주력산업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반도체, 전자컴퓨터, 정밀화학원료, 무선통신장비, 철강제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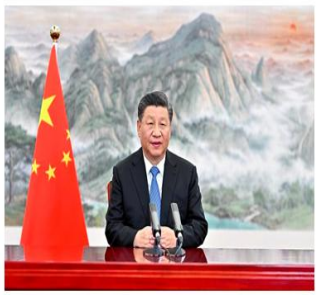


중한 투자: 규모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9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2024년 말 기준 한국의 대중국 누적투자는 956억 2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VS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신고 투자액은 57억 8,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6.1% 증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실제 투자액은 5억 1,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8.4% 증가했습니다. 2024년 말까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누적 직접투자액은 79억 5,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과 한국은 떼어놓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지적하며 "양국 협력과 다자간 조율을 강화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과 원활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문교류를 심화하고, 상호 이해를 심화하며, 여론의 기반을 다지고, 중한 우의가 양국 국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양국 관계의 큰 방향을 견지하며, 중한 관계가 시종일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총리는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며,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오랜 교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무역·문화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탁월한 지도 아래 중국은 눈부신 발전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칭찬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중한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중국과 함께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심화시키고, 양국 국민 간의 감정을 개선·향상시키며, 한중 협력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II. 중한 경제무역협력 참여에 따른 장쑤성의 새로운 이점



영역	107200km²	103290km²
인구	8526만 명	5176만 명
GDP	1조 9300억 달러	1조 8600억 달러
1인당 GDP	2조 3100억 달러	3조 6,100억 달러(약 1.6배)
총 수출	5,134억 달러	6,838억 달러

(1) 경제·무역 협력의 이점

장쑤성은 중국에서 가장 경제 활동이 활발한 성 중 하나이며, 오랫동안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장쑤성의 GDP는 약 13조 7천억 위안에 달하여 광둥성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크며, 국가 GDP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장쑤성은 산업, 서비스업, 농업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비교적 다각화된 경제 구조를 자랑합니다. 탄탄한 제조업 기반 덕분에 장쑤성은 국가 핵심 산업 기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외 무역 측면에서도 장쑤성은 중국의 주요 무역 성입니다. 2024년 장쑤성의 외국인 투자 기업과 민영 기업의 수입 및 수출 규모는 각각 2조 6,200억 위안과 2조 5,500억 위안으로, 성 전체 수입 및 수출액의 46.6%와 45.3%를 차지했습니다. 장쑤성과 한국의 수입 및 수출 무역 규모는 중한 간 총 무역 규모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쑤성은 중국에서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되었고, 한국 기업의 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으며, 한국과의 무역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 되었습니다.

(2) 산업협력의 상호보완적 이점

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따르면, 완전한 산업 시스템은 41개의 주요 산업, 207개의 중형 산업, 그리고 666개의 부차 산업을 포괄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장쑤성은 41개의 주요 산업 중 4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13개의 국가급 개발구를 갖추고 있어 산업 협력을 위한 훌륭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장쑤성은 수많은 대학과 연구 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강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쑤성은 다양한 산업을 자랑하며, 중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전 세계 GDP의 약 3%를 차지합니다. 현재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408개 기업이 장쑤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난징 LG 중국 본사



옌청 둥펑 위에다 기아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45만 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있으며, 그 대부분은 장쑤성과 광둥성에 위치해 있습니다.장쑤성은 21만 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을 자랑하며, 전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장쑤성 쑤저우에는 9만 개가 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있으며, 현급 도시인 쿤산에는 3만 개가 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있습니다.이 중 장쑤성은 6,500개가 넘는 한국 투자 기업을 자랑하며, 중국에서 가장 큰 무역 및 투자 목적지입니다.현재 삼성전자(쑤저우), SK하이닉스(우시), 기아자동차(옌청), LG에너지솔루션(난징)과 같은 한국 기업이 모두 장쑤성에 사업을 설립했습니다.LG전자의 가장 큰 냉장고 및 컴프레서 생산 기지는 타이저우에 있습니다.

(3) 국제협력 플랫폼의 장점 : 2017년 12월 중한산업단지 설립

한중(옌청) 산업단지:

장쑤성 옌청에 위치한 이 단지는 옌청 경제기술 개발구 내에 건설되었으며, 자동차(신에너지 자동차, 지능형 커넥티드카) 및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SK온, 현대모비스, 경신전자, 신한은행 등 170여 개 한국 기업이 이 단지에 입주했습니다. 총 투자액은 미화 13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한국 등록 투자액은 미화 53억 8천만 달러, 실제 투자액은 미화 21억 1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동시에 총 투자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한국 투자 프로젝트는 총 141개, 총 투자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인 한국 투자 프로젝트는 47개가 설립되었습니다.

중국-한국(옌타이) 산업단지:

산둥성 옌타이에 위치한 이 단지는 중국의 발전 전략을 한국과 연계하고 고급 산업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산둥성 최초의 외국 로펌 중국 대표 사무소, 산둥성 최초의 한국 투자 전시 기관, 옌타이시 최초의 한국 투자 브랜드 기획사 등 다수의 한국 투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중국-한국(후이저우) 산업단지:

광둥성 후이저우에 위치한 이 단지는 약 12.7㎢의 계획 면적을 자랑하며, 전자·정보기술, 석유화학, 신에너지, 스마트 장비,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문화창조, 전자상거래 등의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합니다. 이 단지는 이미 SK그룹의 총 투자액 약 1,000억 위안 규모의 중한과학기술도시 프로젝트를 유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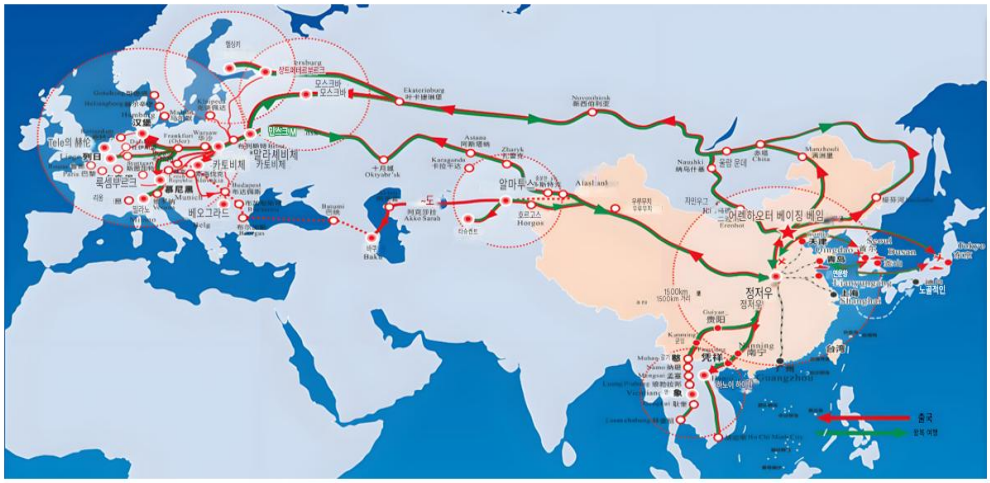
(IV) 위치적 물류 이점

장쑤성은 더욱 넓은 시야로 수상교통망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상교통 장쑤성"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장쑤성은 베이징-항저우 대운하 남부 장쑤 구간에 대해 "3대 2"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현재 3단계 수로를 2단계 수로로 확장 및 개량했습니다. 운항 가능 선박은 1,000톤에서 2,000톤으로 확장되어 남부 장쑤 운하의 처리 용량이 60% 증가하고 운송 비용은 20% 절감됩니다. 올해 말까지 1,000톤급 선석 30개 이상이 추가되어 전체 노선의 1,000톤급 이상 선석 수는 79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2027년까지 전체 노선의 1,000톤급 이상 선석 수는 134개에 달할 예정입니다.

남통 치동항, 옌청 대풍항, 롄윈강항 등 한국 서해안의 항구들 간의 직선 거리는 400~600km이다.





중국철도고속철도(CR Express)는 중국철도공사(China Railway Corporation)에서 운영하는 열차입니다. 고정된 열차 번호, 노선, 시간표 및 전체 노선 시간표로 운행됩니다. 중국, 유럽, 그리고 일대일로(Belt and Road) 연선 국가 간 컨테이너 및 기타 화물의 국제 철도 운송을 제공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철의 낙타 대상(Iron Camel Caravan)"으로 불리는 CR Express 노선은 직행 노선과 환승 노선으로 나뉘며, "3대 회랑, 5대 항구, 5대 방향, 6대 노선"을 특징으로 하는 기본 구조를 형성합니다. 최초의 CR Express인 충칭-신장-유럽 고속철도는 2011년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CR Express는 32개 노선을 개통하고 11만 대 이상의 열차를 운행했습니다. 유럽,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지역을 연결하는 CR Express는 철도 노선뿐만 아니라 복합 운송 회랑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는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 간의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는 핵심 수단이자, 일대일로-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중국-유럽 화물열차 운행은 산업 이전을 촉진하고, 내륙 도시의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며, 경제 발전을 촉진해 왔습니다.

3. 향후 협력 및 전망





첫째, 경제·무역·투자 협력을 심화하고 시장 협력 기회를 공유합니다.

중국의 광대한 내수 시장은 중한 경제·무역·투자 협력을 심화하고 자유무역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산업 및 공급망이 긴밀하게 통합됨에 따라 상호 강화되는 협력 체계와 공동의 미래가 구축되었습니다. 현재 심각한 세계 지정학적·지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중한 경제·무역 협력은 발전은 불가피하고 퇴보는 불가피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다양한 다층적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했으며, 특히 도시 간 협력이 활발하고 메커니즘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중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여 중한 경제·무역 협력을 발전시키고, RCEP 틀 내에서 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중국, 일본, 한국이 변화하는 지정학적·경제적 환경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조성할 것이며, 이는 시급하고 실질적인 중요성을 지닌 문제입니다. 한·중·일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지정학적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RCEP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 과정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3. 향후 협력 및 전망





둘째, 인재교류를 심화하고 과학기술혁신요소의 상호보완적 공유를 촉진한다.

한국은 400개가 넘는 일반 고등교육기관(대학 및 직업대학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7위입니다. 장쑤성에는 168개의 일반 고등교육기관과 수많은 국가중점연구소가 있습니다. 잘 발달된 산업 시스템과 방대한 제조 클러스터는 시장 수요와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기술 성숙, 검증, 인큐베이션, 시범 시험, 시범 생산 및 상용화를 통해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난징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동아시아 연구센터와 여러 장쑤성 대학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프로그램은 인재 교류 채널을 육성합니다. 이러한 심도 있는 문화 교류는 산업 협력의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징의 국가연구소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경쟁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옌청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전력 배터리 기지를 건설한 것은 기술 협력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양측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자원을 통합하여 산학연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협력적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전자 정보, 첨단 장비, 기본 원천기술, 핵심 부품 등 분야에서 산업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사슬, 산업 사슬, 공급망 협력을 심화하며, 지역 경제 회복탄력성과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과 통신사 협력을 심화하고 주요 성장 동력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신시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화와 녹색 발전 추세에 주목하며, 중한(옌청) 산업단지, 중한(쿤산) 반도체혁신기지 등 기존 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상호 이익과 상생의 원칙, 그리고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따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플랫폼의 핵심 기능과 종합 경쟁력을 강화하며, 더 많은 경제 성장점과 상호 이익 영역을 창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은 중한 양국의 핵심 산업이자 양국 간 핵심 협력 분야입니다. 반도체 설계, 제조, 소재 분야의 협력 강화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해상, 철도 등 복합운송 협력을 심화하고, 동북아 국제물류유통센터를 구축한다.

장쑤성 난퉁 치둥항, 옌청 다펑항, 롄윈강항 등 항만과 한국의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등 특송 통관 시설 간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롄윈강항을 신유라시아대륙교의 동쪽 교두보로 활용하여 한국의 화물을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을 거쳐 장쑤성 항구까지 해상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후 도로와 운하를 통해 롄윈강까지 운송한 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카스가르를 거쳐 철도로 환승하여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 도착하고,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철도, 해상-항공, 해상-육로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동쪽으로는 일본과 한국, 서쪽으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국제 물류 회랑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생태, 문화, 관광 협력을 심화하여 인문 생태 고지를 공동으로 조성합니다.

강, 호수,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장쑤성은 "두 개의 회랑, 두 개의 벨트, 두 개의 구역"을 아우르는 성 전체 문화관광 개발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세계적 수준의 운하 문화유산 및 해안 생태관광 회랑, 창강 도시 레저 및 육교 동방 실크로드 관광 벨트, 그리고 타이후(太湖)와 훙쩌(洪澤) 호수를 따라 생태문화관광지구를 개발했습니다. 장쑤성은 심오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와 휴양지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지닌 국가급 관광레저도시와 관광레저지구를 여러 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 건설을 위한 핵심 경쟁력을 구축하고,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 혁신 개발을 촉진하여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쑤성은 5A급 명승지 26곳, 국가급 관광휴양지 10곳, 국가급 관광레저지구 11곳, 종합관광시범구 8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24년 11월 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일방적으로 시행한 이후, 장쑤성은 난징, 롄윈강, 양저우, 우시 등 4개 입국항을 개방했습니다. "금요일 퇴근 후 중국으로 비행하고 일요일에 복귀하는" 방식은 많은 한국인들의 주말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8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장쑤성 사회
과학원

제 말을 바로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즈오카현의 지역외교
- 지역이기에 할 수 있는 일

일본 시즈오카현 기획부 참여관 Matsumura Akihiro



시즈오카현



시즈오카현의 지역 외교

~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시즈오카현 기획부 참여 마츠무라 아키히로

2025년 9월 26일(금)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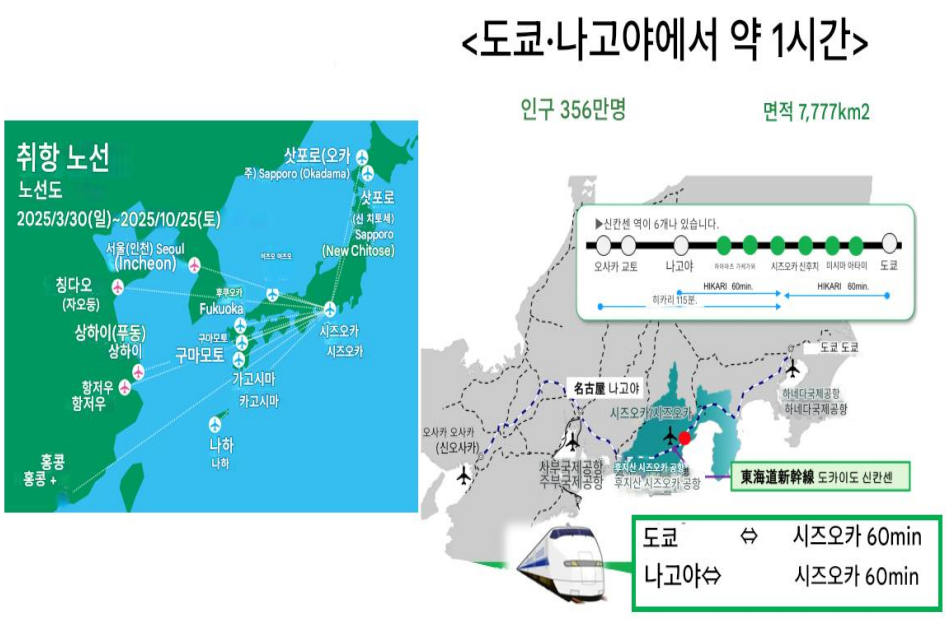
1 시즈오카현의 개요(매력)

2 시즈오카현의 지역 외교

3 한국·중국과의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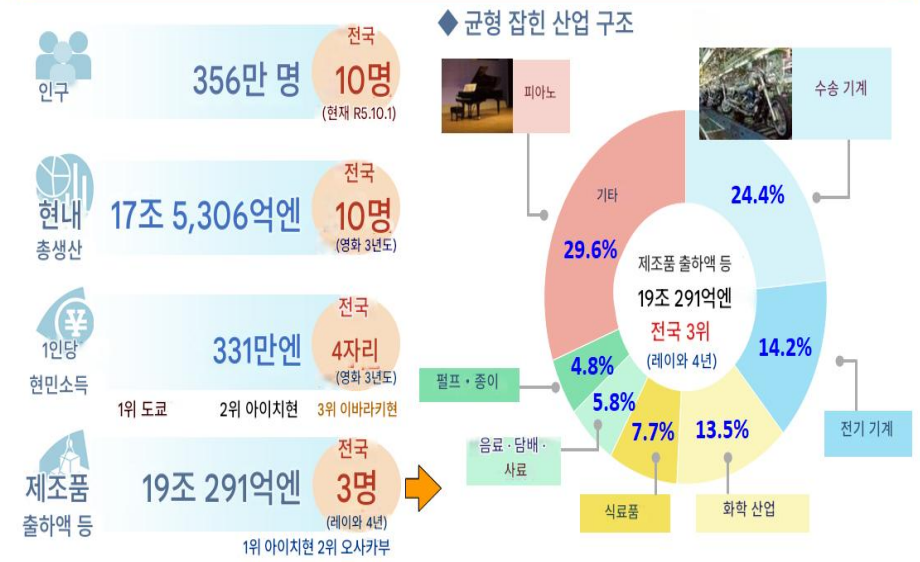
1 시즈오카현의 개요(매력)

1-1 시즈오카현의 소개



1-2 산업의 중심 시즈오카

1인당 현민소득은 전국 4위, 제조품 출하액 등은 전국 3위



1-3 시즈오카현의 주요 기업(제조업)

2022년의 제조품 출하액 약 19조엔(약 1292억 US$) 일본 제3위

◆・시즈오카현의 주요 기업(제조업)◆



1-4 세계 클래스의 자연·문화

풍부하고 매력있는
자연·문화



후지산
세계문화유산



운산 반사로
세계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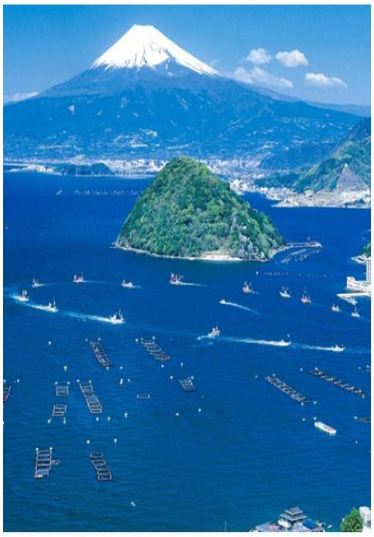
남 알프스
유네스코 에코 파크



차목재배법
세계농업유산



이즈반도
유네스코 세계지오파크



스루가 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베이 클럽

2 시즈오카현의 지역 외교에 대해서

2 시즈오카현의 지역 외교

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있는 일이 있습니다.



시즈오카발의 "지역 외교"

기본 사고 방식

- 국가나 지역에 의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립한 상호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지역 수준의 국제 교류·국제 협력
- 본현의 뛰어난 기술 등을 살려, 산업,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의를 가지고, 상호 이점이 있는 시책을 전개, 민간 단체나 기업, 현민의 교류를 촉진

3 한국, 중국과의 교류에 대해서

3-1 한국충청남도와의 교류 ~2023년 우호협정 체결 10주년~

| 우호의 유대를 확인한 충청남도 우호협정 체결 10주년 기념사업

5월	10주년 기념 공연 환영 리셉션(시즈오카현)
6월	조선통신사 기념 다회(시즈오카현)
9월	공동선언 조인·기념품 교환(한국충청남도)
	대백제전 환영 리셉션·개막식(한국충청남도)
	환황해포럼 (한국충청남도)
십월	연예단(미시마 샤기리) 대백제전 출연(한국충청남도)
	경제우호단·시즈오카상공회의소의 충청남도 방문 (한국충청남도)
	교류단체의 충청남도 방문(한국충청남도)
	현 의회장 대백제전 폐막식 출석(한국충청남도) 한국
	문화의 날 in Shizuoka (시즈오카현)
12월	충청남도문화유산특별전 "성신교 옆의 재발견" (시즈오카현)
	후지 노쿠니 K-POP 토크 카페 (시즈오카 현)



3-1 한국충청남도와의 교류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


차교류


북측 통신사절 교류



무용교류


백제역사전시교류


축제 문화 교류


양궁 교류

3-1 한국충청남도와의 교류 ~상호의 기회를 살린 관광·물산 PR~







보령 해양 매드 박람회 (충청남도 보령시) 2022.7.16 - 8.15





_ 세계 차 축제 (시즈오카 현 시즈오카시) 2022.10.20 - 10.23

3-1 한국충청남도와의 교류 ~다양한 테마로 양지역 대학생교류~






고고학	식육	북한 메신저	지역 활성화
2017년 고고학 관계자 우호 교류 사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X 시즈오카대학	2018년 요리 릴레이 사업 공주대학교 X 현립대학	2020년 시즈오카현 조선통신사 우호 교류사업 단국대학교 외 X 현내 4개의 대학	2023년 한 일4현도대학생 온라인 교류회 충남 내 대학 + 충북 내 대학 X 현립 대학 + 야마나시 우치 대학

3-1 한국충청남도와의 교류 ~K-POP과 e스포츠의 고교생 교류~



한국K-POP고교와 시즈오카현의
고교생이 교류



e-스포츠 교류

충청남도, 시즈오카현, 나라현, 구마모토현,
인도네시아의 고교생이 교류

3-2 중국 절강성과의 교류 ~얼굴이 보이는 지역 외교가 유대를 깊게 한다~



3-2 중국 절강성과의 교류







대학발 스타트업이 연결되는 차세대
협동 (저장대학과의 각서 조인)

3-2 중국 절강성과의 교류 등

세계가 주목
절강성의 스타트업 기업과 인큐베이터
시설을 시찰

그 외,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에 쫓는 바람을.
상하이의 중국 동방 항공 본사 방문.
국제 노선의 확충을 향해, 톱 판매



「강뇌과기(BlinCo)」가 개발한 의수에 의한 피아노 연주를 피로



스즈키 지사와 중국 동방 항공의 부경리


THANK YOU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谢谢